

# 레스터 시티 홈 최종전 승리 '우승 파티'

### 창단 132년 만에 EPL 제패 선덜랜드, 첼시 3-2로 이겨 강등 벼랑끝에서 탈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챔피언이 된 레스터 시티가 마지막 홈경기 승리로 축제의 방점을 찍었다.

레스터 시티는 8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EPL 에버튼과의 홈경기에서 3-1로 이겼다.

지난 3일 2위 토트넘 핫스퍼의 무승부로 창단 132년 만에 첫 1부리그 우승컵을 쟁긴 레스터 시티는 안방 최종전에서 골 잔치를 펼치며 홈 팬들과 우승을 지켰다.

선제골은 제이미 바디가 가져갔다. 전반 5분 만에 앤디 킹의 크로스를 오른발로 침착하게 밀어 넣었다.

바디의 첫 골을 도운 앤디 킹은 전반 33분 오른발 슈트로 직접 골까지 터뜨렸다. 레스터 시티는 후반 20분 바디의 페널티킥 골로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바디는 시즌 23·24호골로 이 부문 1위인 해리 케인(토트넘·25골)에게 1골차로 따라 붙었다.

레스터 시티는 경기 후 우승 세라머니를 펼치며 팬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쁨을 선사했다.

선덜랜드는 첼시를 3-2로 따돌리고 벼랑 끝에서 탈출했다.

선덜랜드는 1-2로 끌려가던 후반 22분 파비오 보리나의 골로 균형을 맞춘 뒤 3분



레스터 시티는 8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EPL 에버튼과의 홈경기에서 3-1로 이겼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챔피언이 된 레스터 시티가 마지막 홈경기 승리로 축제의 방점을 찍었다.

뒤 나온 제메인 데포의 역전골로 승리를 가져갔다. 승점 35(8승11무17패)가 된 선덜랜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8승10무19패·승점 34)를 밀어내고 17위로 올라섰 그인 챔피언십으로 강등된다. 첼시는 승점 48(12승12무12패)로 9위가 됐다. EPL은 18위~20위팀이 다음 시즌 2부리그 /김민근기자



### 전북제일고 전국중별핸드볼선수권대회 우승

전북제일고(교장 오호택) 핸드볼팀의 기세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지난 4월27일부터 5월 4일까지 정읍에서 열린 전국중별핸드볼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전북제일고는 예선부터 다른 팀들과 현격한 실력차이를 보이며 무난하게 결승까지 올라갔다. 결승에서 강원태백기술고등학교를 만난 전북제일고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던 것과 달리 37대 25라는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출전대회 8연속 우승이라는 숫자를 7로 늘리며 전국 최강 핸드볼팀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편 대회 개인 타이틀은 전북제일고 박종하 감독과 홍상우 코치가 지도자상을 수상하고, 전북제일고의 골키퍼 김민석(3학년) 선수가 최우수선수에 선정되며 기쁨을 더했다. /김민근기자

### 전북협회장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 성료

전북골프협회(회장 강종구)가 주관한 '제30회 전라북도협회장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의 열전을 펼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골프협회에 등록된 초·중·고 선수 약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삼태항익산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됐다. 대회 중 갑작스러운 강풍과 폭우 등 나쁜 기상조건을 보였지만 골퍼 꿈나무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선보였다.

그 결과 남고부에서는 이승준(고창북고)선수가 여고부에서는 한승주(합영여고)선수가 남중부에서는 성준민(군산영광중)선수가 여중부에서는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된 김가영(남원중)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를 주관한 전라북도골프협회 강종구 회장은 "꽃은 날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도내 선수들에게 격려를 보낸다"며 "향후 남은 도내 및 전국대회에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볼티모어 김현수 1안타·타점 올려 팀 승리 공헌

### 오클랜드에 5-2로 승리 동부지구 선두 지켜

김현수는 8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캠프이츠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 2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김현수는 이날 더블헤더 1차전에 대타로 출전한 뒤 2차전에는 선발로 나섰다. 지난 8일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이어 이틀 만에 주전으로 나섰다.

시즌 타율은 종전 0.528에서 0.478(23타수 11안타)로 소폭 떨어졌다. 2타점제도 기록했다.

오클랜드 선발 투수 제시 한을 상대로 1회 첫 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물러났던 김현수는 3회 1사 2 3루 상황에서 2루 땅볼을 쳐 3루 주자를 불러들이며 타점을 올렸다. 팀이 5-2로 앞선 5회에는 선투타자로 나

와 한을 상대로 1볼 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도 4구째 직구를 때려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이어 마크 트럼보의 안타로 3루까지 진루했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득점에는 실패했다.

6회에는 바뀐 투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를 상대로 2사 1, 2루 상황에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섰지만 파울 플라이로 물러났다. 이후 김현수는 교체 없이 9회초 수비까지 소화했다.

볼티모어는 5-2로 승리하며 17승12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선두를 지켰다.

한편 김현수는 앞선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교체 출장해 9회 1사 1, 2루에서 한 차례 타석에 들어섰지만 진루타를 때리는데 만족해야 했고, 팀은 4-8로 졌다. /김민근기자



김현수는 8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캠프이츠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 2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김민근기자

### 기성용, 약 4개월 반 만에 시즌 2호골 터뜨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스완지시티의 기성용(27)이 약 4개월 반 만에 시즌 2호골을 터뜨렸다.

기성용은 7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불린 그라운드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15~2016 EPL 37라운드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6분에 시즌 2번째 골을 터뜨렸다. 지난해 12월28일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의 리그 경기에서 마수같이 골을 터뜨린 후, 약 4개월 반 만에 터진 2호 골이다. 기성용은 후반 6분 모두 바로우가 올린 크로스를 문전에서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스완지의 3번째 골을 터뜨렸다. 지난 3월20일 아스톤 빌라전 이후 처음으로 선발 기회를 잡은 기성용은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펼쳤다.

기성용은 올해 1월 귀국한 감독이 부임한 이후 임지가 좁아졌다. 2월 들어 뇌진탕 증세와 발목 부상까지 겪으며 그라운드를 밟는 일은 더 뜰췌다.

그러나 리그 마지막 2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선발로 나와 핵심자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